

제4판

효과적인 목회자 멘토링

목회사역 연구

crcna.org/PC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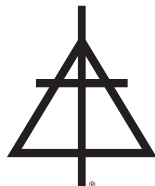


Christian Reformed Church
Pastor Church
Resources

제4판

효과적인 목회자 멘토링

목회사역연구



Christian Reformed Church
Pastor Church
Resources

효과적인 목회자 멘토링(*Toward Effective Pastoral Mentoring*)—4th edition © 2022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1700 28th St. SE, Grand Rapids, Michigan, 49508-1407. All rights reserved. With the exception of brief excerpts for review purposes, no part of this manual may be reproduc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Prin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전화 1.877.279.9994 2837나 이메일 주소 pastorchurch@crcna.org로 연락해 주십시오.

목차

서론 1

이론적 토대 및 체계 2

이론적 토대 2

이론적 체계 3

멘토링 훈련 5

시작하기 6

관계 가꾸기 7

합이 맞는지 확인하기 7

기대치 분명히 하기 7

필요한 조율하기 7

효과적인 멘토링 관계 7

힘의 불균형 해결 8

취급 주의 8

특별 취급 주의: 성과 인종의 차이를 넘어서 8

멘토링 모듈 10

안수: 구별됨 11

안수: 언약 및 계약 12

관계 맺음의 기술 13

안식일 준수 14

권위 15

목회자와 카운실: 누가 보스인가? 16

설교표절 17

성도와의 우정 18

시간관리 19

설교라는 이벤트 20

인간적인 설교자 21

설교자와 본문 22

배우자: 좋거나 나쁘거나 23

영성 훈련인 경청 24

잡담 사역 25

힘든 사람과 건강한 공동체의 교차점 26

갈등: 분명하고 현존한 위협과 기회 27

충돌하는 가치의 딜레마 28

처음 마주하는 사역 29

장례예식 29

성만찬 30

목회 리더십과 조직 리더십의 교차점	31
피드백 및 학습능력	32
선 넘지 않기: 친밀감	33
선 넘지 않기: 비밀보장	34
선 넘지 않기: 자기 인식 및 자기 훈련	35
중요한 사람들: 목회자의 친구, 가족, 사랑하는 이들	36
중요한 사람들: 동료 목회자들	37
과도기를 다루는 지혜	38
이야기가 들려질 때	39
목양: 우리의 스토리와 하나님의 스토리가 만나는 곳	40
더 깊은 고찰과 대화를 위한 도서 목록	41

서론

1982년 총회 이래 북미주 개혁교회에서 말씀 사역자로 안수받은 모든 사람은 멘토링 관계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학교를 갓 졸업한 졸업생과 타교단에서 목회경험이 있는 목회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02년 북미주 개혁교회는 릴리 재단의 기금을 받아 지속가능한 최고 수준의 목회를 위해 이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증진시키는 것은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멘토링 매뉴얼인 “효과적인 목회자 멘토링”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은 2008년 초판 이후로 네 번째 판본입니다.

이론적 토대와 체계

이론적 토대

기독교 사역에 대한 준비는 신학교라는 학문적 배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역 환경에서 사역자들은 신학적, 성경적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도 반드시 지속적인 학습과 더불어 변화하는 세상에 교회와 공동체가 창의적으로 발맞춰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학문적 공동체에서 개발된 신학적 토대와 비판적 사고력은 지속적 학습과 반추의 과정으로 보강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역은 도전 가득한 모험이 됩니다. 북미주 개혁교회 목사-교회지원부가 2018년에 릴리 재단에 제출한 목회 활성화 기획안은 현대 사역에서 특히 어려운 점과 건강한 사역의 징후들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와 같은 평범하고도 멋진 전형적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수를 받음으로 어느 면으로는 “타인”으로 구별됩니다. 목사는 공동체에 속하여 마치 영원히 그곳에 거할 것처럼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소속되기보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목사는 인간과 신성을 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눈이나 귀, 마음에 분명히 느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이런 목사의 임무는 고통스러우면서도 다정한 것입니다. 일이면서도 놀이이고 공공장소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

정기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재능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중 연설, 공감하는 경청, 행정, 갈등 관리, 그룹 운용, 영적 방향, 설교문 작성, 조직 리더십 등입니다. 이 업무 목록은 그 자체로 부담감을 줍니다. (하지만) 업무를 더 어렵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 교회는 교인들의 고령화와 전체 인원 감소를 걱정합니다.
- 초대형 교회와 경쟁해야 하는 현실과 온라인을 통한 훌륭한 설교에 대한 접근가능성에 주눅듭니다.
- 목회자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가 건강하지 않은 영웅적 리더십 패러다임을 부추기고 비판을 도맡아 당하게 합니다.
- 영적 리더십 모델보다 경영리더십 모델을 우선시 합니다. 즉, 조직으로서 교회의 건강이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보다 더 중요시 됩니다.
- 테크놀로지가 점점 더 일에 영구적으로 묶이게 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이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 경쟁하는 가치들에 지지 않기 위해 기독교 전통에 뿌리를 박고자 균형을 잡으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충분히 민첩하려면 공동체의 지혜 즉, 교인들, 목사 동료들 그리고 롤 모델이 되는 멘토/귀감되는 이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회 사역이 직면한 도전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지식이 커짐에 따라, 활력 있게 사역하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표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표현도 늘어갑니다.

- 잘 개발된 목회자 정체성: 자기 인식과 일관성 있고 풍성한 성경적-신학적 통찰력과 직접적인 사역에 대한 이해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
- 목회자 개인의 스토리와 회중의 스토리, 성경의 스토리가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다층적 이해

- 목회자 은사와 특정한 업무 스킬, 해당 회중의 기대치, 회중을 이끄는 리더십의 건강한 조화
- 회중과 연결되게 하는 관계적 스킬 및 회중을 사회 구조로 보고 이해함으로 증진된 관계적 스킬이 불안을 잘 다스리는 안정적 리더십과 지혜를 제공하는 것
- 사역에서 고립은 목회자에게 유해하므로, 이를 피하도록 상호 존중하는 목회자들끼리 맺는 동료관계
- 멘토를 받는 입장이 되어 사역에서 롤모델이 되는 사람의 지혜를 받아들이며 계속된 배움과 성장¹

지난 30년간 북미주 개혁교회에서 목사-교회 관계가 불편해져서 관계를 중단하게 된 경우가 급증했습니다. 여러 다른 상황 중에서 한 가지 만성적인 요소는 목회 사역에서 “흔한 감기”라고 하는 개인적, 직업적 고립입니다. 목회를 잘 하고 있는 목회자는 사역을 하면서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언급합니다.

종종 사역은 매우 복잡하고 외롭습니다. 북미주 개혁교회 내에서의 멘토링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는 전략적 프로그램입니다. 첫째, 우리 멘토링 프로그램은 평생학습 습관을 위한 굳은 기초를 확립하도록 목회자들을 돕습니다. 둘째, 새로 목사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사려 깊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경험 많은 사역자들과 관계를 맺도록 교회 밖 기회를 제공합니다. 멘토가 코치를 하는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멘토가 영적인 방향을 제공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경험 많은 동료가 해 주는 격려와 지지는 영감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 사역 시작부터 건강한 패턴을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론적체계

목회 사역은 세 가지 특징적인 “부르심의 원” 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원은 각각 사역자라는 **사람**, 말씀의 사역자라는 **역할**, 사역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세 원은 특정한 **상황**이라는 외적인 부르심이 특정한 **사람**의 내적인 부르심과 만나서, 어떻게 안수가 사역자 **역할**로 구현되는지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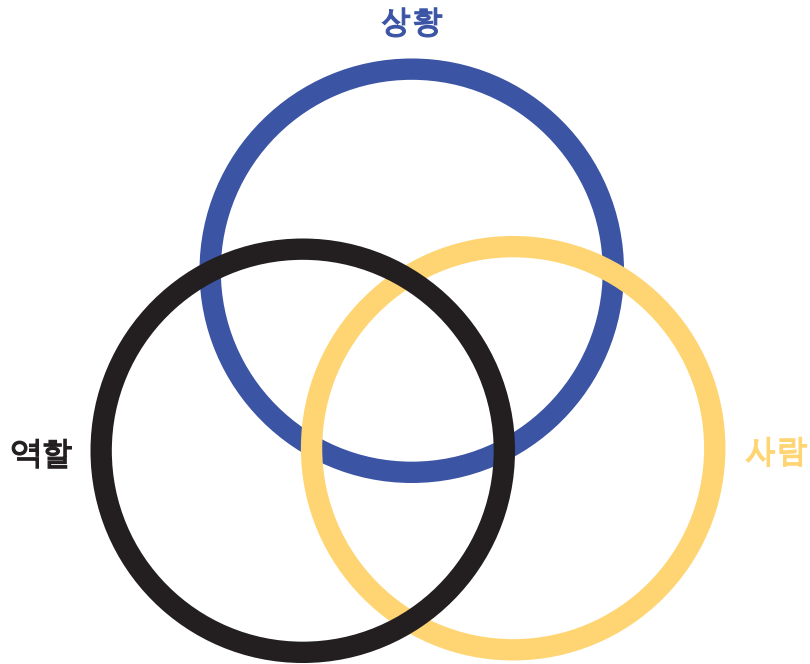
역할은 목회적 책임 및 기대의 범주를 아우르는 사역의 “무엇”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설교, 가르침, 사역할 평신도 훈련, 목양, “이미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살아있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상황은 “어디서” “언제” “누구와”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리와 문화, 지역적, 국제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며 사회적 트렌드, 발전, 가치, 회중의 연령대 혹은 사역 노력, 그리고 회중 및 공동체의 인구통계 등이 포함됩니다.

사람은 단순하게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언제”(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라든가 “왜”(그 사람의 동기), “무엇”과 “어떻게”(그 사람의 강점, 경향성, 스타일, 맹점에 대한 인식) 과 같은 하위 범주의 질문들이 포함됩니다.

¹ Thriving in Ministry Proposal prepared for Lilly Endowment Inc. by Pastor Church Resources, 2018. p.1

부르심의 원



멘토링 관계는 목사 내면의 역동성, 사역 과정의 문제들, 사역의 상황,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목사의 특정한 역할과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지들 통하여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역할을 맡은 특정한 사람의 신비와 역동성에 관심을 가지며 언급할 것입니다.

사역의 과정 속에서 변화는 늘 발생합니다. 각각의 세 원과 관련될 때 더욱 분명합니다.

- 공동체 혹은 문화적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 목회자가 성장하고, 성숙하며 나이가 듭니다.
- 한 역할을 해내는 방식 혹은 그 역할의 기능이 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 상황, 역할의 배열은 역동적 과정입니다.

이 세 가지 각각의 부르심의 원의 끊임없는 변화는 동료 관계라는 방식을 통해 고립을 막고 지속적인 학습을 독려하도록 목회 과정 내내 멘토링 관계의 계속되는 상관성을 제안합니다.

멘토링 훈련

의사들은 반드시 자기 전공 외의 다양한 전문분야의 기술도 연마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의 멘토링에 대한 정의를 보면 멘토들도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멘토는 보수나 사례비를 받지 않고 상담자, 친구, 지기로서 다른 목회자들을 섬기는 목사이다...[그들은] 정기적으로 혹은 적절하게 자주 자기에게 맡겨진 목사와 만나서 목양하는 자로서 토론하고 이끌어주며 경청, 격려, 반대하기도 하고 기도해 주며 상호적이며 동료애 정신으로 자신이 멘토가 되어주는 목사와 함께 헤쳐 나갑니다.”²

이 매뉴얼은 다양한 전문분야 즉, 멘토링, 코칭, 영적 방향 등의 자세와 연습을 종합하여 멘토링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멘토들이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도구들을 인식하고 멘토와 멘티가 만날 때 존재하는 형식상의 기회를 잡습니다.

- 전문성을 갖추고 다른 사람과 자원을 공유하여 지식, 조언, 안내, 격려 등을 제공 (**멘토링에 대한 전통적 이해**)
- **코치**가 하듯이 멘티 내면의 가정, 동기, 아이디어, 답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짐
- 코치가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 및 기술을 사용하지만 영성 형성과 삶에 관계된 문제들에 더 초점을 맞춤 (**영적 지도**).

여러분이 이미 이 중에서 여러가지 혹은 모든 스킬들을 평상시 목회에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멘토로서 이러한 스킬들을 사용할 때는 사려 깊은 태도와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목사-교회 지원부는 여러분의 멘토링 관계에 필요한 스킬과 경험에 초점을 맞춰 설계된 훈련 및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추가되는 훈련 기회 및 자료 목록들은 crcna.org/classis/mentor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² Acts of Synod 1982 (Grand Rapids, MI: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1982), 584.

시작하기

첫번째 사역지에서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고 경험했는지가 이후의 사역에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건강한 시각, 습관, 스타일 및 정기적으로 반추하는 습관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초작업입니다. 한 목회자가 사역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분별하고 더 깊게 자기 인식을 하는 것역시 그 목회자의 은사와 열정에 맞는 건강한 사역을 하도록 도전하고 기회를 갖도록 돕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평생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섬김으로 이어지고 탁월한 목회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끄는 좋은 시작의 가능성을 강화시키도록 설계됩니다.

북미주 개혁신교회에서 새로 안수받은 목회자는 먼저 멘토를 찾아 나섭니다. 이상적으로는 지리적으로 대면 만남이 편리한 곳에 사는 적당한 멘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전하여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가능한 멘토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치, 지역, 회중에게는 그들만의 독특한 컨텍스트와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다이내믹을 잘 알고 그에 민감한 멘토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노회에서 임명된 북미주 개혁신교회의 지역 자문목사들은 적절한 멘토를 찾아서 선택하는 것을 돕습니다. 멘토들은 북미주 개혁신교회에서 안수받은 목사들이어야 하는 것이 기본 전제이지만 교단 외부에서 멘토를 선택하는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 가꾸기

멘토링 프로그램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의 질입니다. 상호 존중, 겸손, 감사, 정직은 멘토링 관계가 제공하는 배움, 성장 및 호혜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멘토링 관계의 질은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멘토, 멘티, 지역 자문목사에 의해 언급되어야 합니다.

합이 맞는지 확인하기

관계 내에서 기대했던 대로 서로 합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몇 번 만남을 가져보고 해당 멘토-멘티 관계에서 어느 쪽도 생산적이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이면 그 멘토링 관계는 중단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대치 분명히 하기

처음 몇 번 만나는 동안 멘토-멘티 관계에서 양측 모두 기대치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만나는 장소, 만나는 빈도수, 토론을 위한 주제 선택, 가끔 배우자 동반 (해당될 경우), 즉흥적으로 만남을 갖는 다른 멘토와의 관계, 가끔 그룹 멘토링 등과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필요한 조율하기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만남 스케줄이나 만나는 장소 등이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소개하는 것과 관련될 수도 있고 혹은 조언을 받는 것은 좀 줄이고 생각이나 감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자고 멘티가 멘토에게 건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조율이 잘 되지 않을 경우 관계가 정체되거나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멘토링이 될 수 있도록 패턴을 계발하고 때로는 그런 패턴을 수정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멘토링 관계는 교사/코치-학습자 다이내믹에서 시작되어 서로의 경험과 지혜로 상호 배우는 좀더 동료와 같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효과적인 멘토링 관계

멘토와 멘티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틀은 버크만 평가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북미주 개혁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제공되며 멘토로 섬기려는 이들에게도 제공됩니다. 이 틀은 멘토의 자기 인식을 깊게 하도록 도와주며 멘토와 멘티 사이의 관계를 증진시킵니다.

버크만 평가에 대한 정보는 목사-교회 지원부 웹사이트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crcna.org/pcr/pastors/vocational-ministry-assessments.

힘의 불균형 해결

취급주의

모든 멘토링 관계는 특정한 파워 불균형을 드러냅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점과 매우 중요한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멘토가 멘티보다 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으며 더 강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 경험, 영향력의 차이는 멘토가 쥐는 파워의 다각적인 측면이 됩니다. 멘토링 관계에 대한 기대와 특별함은 멘토가 이러한 파워를 활용해서 멘티의 성장과 성숙을 격려하고 멘티가 풍성하게 자라가도록 돕는 데에 있습니다.

파워 불균형의 잠재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멘토와 멘티는 보통 각자 자신의 취약점을 공유합니다. 단지 교회 생활에서의 문제들뿐 아니라 목회자 내면의 삶과 사생활에 대해서 나눕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한 가능성과 함께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멘토가 건강한 선을 넘어서는 정도의 지지를 멘티에게서 얻으려 하기 시작할 때가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멘토는 정기적으로 “지금 누구의 정서적 필요에 가장 집중해야 하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멘토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주된 지지를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건강한 멘토링 관계는 목회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감한 정보를 나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적절한 경계선이 없거나 다른 지지 시스템이 없는 멘토는 부주의하게 민감한 정보를 누설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멘토들은 비밀 보장에 관한 요구를 숙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멘토와 멘티 모두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멘토와 멘티가 그들 관계의 역동성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역동성에 대해 터놓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멘토링 관계에 나타나는 힘의 불균형은 목회자가 자신의 교인들과 갖는 모든 관계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역동성이기도 합니다. 진지한 고찰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북미주 개혁교회 학대방지사업부 [Network³](https://network.crcna.org/)에서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 취급주의: 성과 인종의 차이를 넘어서

훌륭한 멘토들은 그들 멘티의 시야를 넓히는 것을 돕기 때문에 멘티들이 자기 자신과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멘토들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과 인종의 차이를 뛰어 넘는 멘토링 관계는 멘토와 멘티 모두 세상과 자기 자신을 훨씬 선명하고 통찰력 있게 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잠재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도 그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비밀 보장이나 자신들의 이야기가 공유되는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멘토링 관계의 특성 자체에 대해서도 다른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북미주 개혁교회에는 역사적으로 특정한 인종 그룹과 관련된 지배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이 지배적 문화의 배경을 가진 멘토들은 이 문화 밖에서 온 멘티들이 겪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현명한 멘토는 그들이 겪는 어려움의 정당성을 목살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판단을 유보하며 멘티의 경험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3 <https://network.crcna.org/>

또한 남자가 여자를 멘토링 하거나 여자가 남자를 멘토를 하는 경우, 훌륭한 멘토링 관계에 꼭 필요한 친밀함과 연약함을 나누는 것이 정서적인 심지어는 육체적인 선을 넘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멘토링 관계에는 기도의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적절한 선으로 친밀함의 경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습입니다. 멘토는 그러한 선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되 멘토와 멘티 양측 모두 건강한 관계의 이러한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파악하고 인식하며 존중의 관심을 보여야 할 서로 다른 성과 인종 간의 깊고 오래된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서로 다른 역사, 학습과 인지의 방식, 배움과 훈련의 방식, 권위 행사의 공유 방식 등은 우리에게 얼마나 뿌리 깊은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어려움이 될 수 있는 차이점들을 언급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들에 대해서 멘토링 관계 시작부터 동의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멘토링 모듈

멘토링 모듈은 멘토와 멘티가 대화하며 의미 있는 고찰을 할 수 있도록 접속 지점을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이 매뉴얼에 포함된 모듈은 완전한 버전이 아니지만 멘토와 멘티가 찾는 대화의 주제에 의해 보강될 수 있고 보강될 것입니다.

멘토링 관계의 과정 속에서 이 모든 모듈이 논의될 것입니다. 이 중 많은 모듈은 첫번째 만남에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나머지는 멘토링 관계를 진행해 나가면서 멘토와 멘티 중 누구든 자유롭게 주제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각각의 모듈에는 더 깊은 고찰로 이끄는 일련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세 원 패러다임(three-circle paradigm)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 및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시청을 원하시면 crcna.org/classis/mentors에서 찾아 보십시오.

우리는 다음의 모듈이 가장 도움 될 것으로 앞서 멘토링 과정에서 언급하였습니다.

1. 안수: 구별됨 (see page 11)
2. 목회자와 카운실: 누가 보스인가? (see page 16)
3. 선 넘지 않기: 친밀감 (see page 33)
4. 시간관리 (see page 19)
5. 중요한 사람들: 동료 목회자들 (see page 37)
6. 권위 (see page 15)
7. 배우자: 좋거나 나쁘거나 (see page 23)

안수: 구별됨

목사 안수는 분수령과 같습니다. 공적 예식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이 사람이 구체적인 세팅에서 구체적인 과업 혹은 역할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위해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은 이 길을 훨씬 먼저 앞서 간 사람들의 길을 밟는 것이며 전세계 기독교 사역자들의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란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특정한 섬김의 일부로 자신의 삶을 의도적으로 드리는 표입니다.

목회자가 다른 여느 사람들처럼 똑같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긴 하지만, 안수를 통해 섬김을 위해 구별되고 타자의 임재를 부르는 바로 그 역할이 목사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합니다. 안수의 일부로 목사가 입는 “타자성”의 옷이 있습니다. 목사는 안수 받기 전까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었던 방식으로 이제는 소속되지 않으며 이런 역동성을 목사는 상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구별되는” 것의 역동성과 한 사람의 삶에 이것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식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사람, 역할, 상황이라는 세 원이 만날 때 고찰을 위한 풍성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안정성과 유연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 교차지점을 잘 조율하려면 지혜, 겸손, 용기, 힘, 유머가 필요합니다.

고찰을 위하여:

1. 안수의 여정에서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공예배의 절정의 순간의 경험을 고찰해 보십시오. 무엇이 특별히 긍정적이고 멋지게 느껴집니까? 안수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습니까? 어떤 위험을 상상하십니까? 여러분이 안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 같습니까?
2. 사역자로 섬겨야겠다고 결심하도록 영향을 끼쳤거나 여러분의 사역의 토대를 형성하는 등의 여러분 사역의 중요한 롤 모델에 대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사역의 컨텍스트 내에서의 기대치와 여러분이 상상했던 역할이 어떻게 비슷하고 또 어떻게 다른니까?
3. “상황”은 한 사람의 사역의 직접적인 세팅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교회 역사의 길고 넓은 상황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안수받는다는 것은 앞서 그 길을 갔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서고 그들의 어깨 위에 서는 것을 뜻합니다. 안수는 또한 전세계의 말씀의 사역자들과 함께 어깨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사역의 장엄한 상황 및 궤적의 현실을 잘 고찰하시기 바랍니다.

안수: 언약과 계약

목회자와 회중의 관계는 맹세를 함으로써 묶입니다. 공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엄숙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혼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엄숙한 맹세를 함으로써 그들의 관계를 틀로 묶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와 사역 환경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헌신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사실 목회자와 그 목회자의 사역 대상인 사람들은 설교, 가르침, 목양 등의 계약상의 기대로 맺어지는 약속과 같이 더 넓은 의미의 언약으로 형성되는 관계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중에는 그들의 관계를 주로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적인 인식과 외적인 청빙레터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증을 받는 것이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갈등의 상황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 관계를 주로 계약적이기만한 관계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양 및 사역 업무에만 초점을 맞추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하지 않는 모든 일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언약의 틀을 목회자와 회중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서로에게 어떻게 말하며 대화해야 하는지, 서로를 위한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할지에 대한 지침으로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회자와 회중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성령님의 끊임없는 임재를 통해 성숙해져 갑니다. 계약적인 요소들은 질적 그리고 양적인 요구사항들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이 일을 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등 말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업무가 아니고 우리의 강점인 은사가 아닌 일이라도 어쨌든 단순히 해내야 하는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계약상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을 잘 하면 언약을 준수하는 것을 사랑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준수를 잘 하면 계약상의 요구를 조율하고 협상에서 유연함을 제공합니다.

고찰을 위하여:

1. 언약과 계약으로 목회자가 묶인다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역에 대한 관점이 이 중에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치우침이 존재하거나 부재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이 자신과 여러분의 사역대상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2. 여러분의 현재 사역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여러분의 목회를 언약관계로 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약관계로 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관찰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몇 가지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는 목회자의 계약상의 의무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알립니까?
3. 청빙레터에 쓰여 있는 것보다 더 자세한 목회자의 직무해설에 대한 필요와 지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 및 계약 관계라는 현실을 유념하면서 “선택적” 업무와 더불어 핵심적인 중요한 업무를 분명히 기술해야 할 필요를 어떻게 목회자와 카운실이 함께 조율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4.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든지 다른 곳에서든지 여러분의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지속적으로 분별하는 가운데 “언약”과 “계약”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관계 맺음의 기술

목회자가 회중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임재하십니다. 일하심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령께서 이미 하고 계신 일에 참여할 방법을 찾아 행동을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목회자는 이미 있는 차선에 끼어 들어가는 한 대의 차와 같습니다.

운전자가 차선에 합류하는 데에는 공격적인 차선 변경에서부터 지나치게 조심하는 변경 등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차선이 하나로 합류할 때 존중의 방식으로 차선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 공간이나 공동체에 들어가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목회자와 회중이 이를 상호 존중하며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사람도 만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다양한 패턴, 성격, 기대, 지뢰, 규칙, 역사 등 역동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에 들어간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과 주의를 기울이며 경청하려는 의지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개인적인 스토리와 은사, 리더십 등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미 그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회중 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목회자를 겸손하게 합니다. 목회자 개인의 스토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효과적이려면 목회자는 공동체의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그들의 패턴, 역사, 가치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고자 하고 흡수하려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목회자에 대한 기대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공동체가 교회 밖의 더 큰 커뮤니티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회중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전성기” 가 과거에 있었는가?

고찰을 위하여:

1. 이 회중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 교회의 스토리와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스토리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차선에 합류하는 과정을 묘사해 보십시오.
2. 이 공동체의 문화와 이 공동체가 살아온 컨텍스트가 여러분이 자라온 공동체의 문화와 컨텍스트와 어떻게 비슷하고 또 다른니까?
3. 목회자의 역할에 대한 이 공동체의 기대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은 목회자 역할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기대와 얼마나 잘 일치합니까?
4. 이 사역의 컨텍스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역의 컨텍스트가 어떻게 여러분 개인의 강점을 끌어내고, 한 사람인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전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 어느 부분에 누구에 의해서 조율이 필요할까요?

안식일 준수

“엿새 동안은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출20:9). 일곱째 날은 ...

하나님은 창조의 리듬 속에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리듬에 대한 이유를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넣는 것은 창조사역에서의 하나님 자신의 리듬을 모방한 것이며 노예에서 해방시켜주신 것을 되새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우리의 노예가 아님을 상기시키는 것이고 인생이 우리의 끝없는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실재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안식일 준수는 일로부터 쉼을 얻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쉬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쉬는 철저하게 멋지고 중요한 경험일 뿐 아니라 매우 훌륭하고 의미심장한 영적 증언입니다.

하지만 목사의 삶의 리듬은 보통 전형적인 주일에 안식하는 리듬과 반대로 흐릅니다. 목사의 사역 일정은 주중에 점차 고조되다가 주일에 정점을 찍습니다. 개인적인 교제와 더불어 기타 여러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주일을 특별히 부담스러운 날로 만들 수 있으며, 언제든지 일을 할 준비를 하며 대기상태로 있는 것이 바운더리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목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간에 목사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고찰을 위하여:

1.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안식일을 준수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일과 쉼의 리듬을 여러분 자신의 일에서 쉬고 하나님의 일로부터 쉬는 차원에서 묘사해 보십시오. 이러한 쉼을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까, 대체할 수 있습니까?, 아예 휴식이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내면의 대화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2.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주일을 향해 점점 고조되어 정점에 이르는 주간 리듬은 어떻게 어긋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주간 리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교차합니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3.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목회자 역할을 하는 것, 즉 일에서의 요구와 은혜로 사는 삶의 롤 모델로서의 어려움을 설명해 보십시오.
4. 공동체의 필요와 여러분의 안식일 준수가 충돌할 때 안식일 준수에 대한 자신의 필요에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이 건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자기 훈련을 어떻게 더 요구하는 것 같습니까?

권위

말씀의 사역자로서 안수를 받음으로써 갖게 되는 내재적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목양을 할 때 사역자의 의견과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강대상에서나 심방에서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심지어 목회자가 하나님과 같다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에서 확연히 눈에 보이는 역할을 위해 구별된 존재가 되는 안수식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좀더 가까운 사람으로 사역자를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역자의 역할에 내재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권위와의 관계는 상당한 자기 인식, 정직, 겸손,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의 지위가 주는 권위에 도취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공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리, 신뢰받는 친구이며 조언자가 되는 자리, 카운실의 결정에 영향력을 주는 자리에 앉다는 것은 매혹적인 일입니다. 목회자의 지위가 주는 권위로 인해 마음이 놀리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권위와 책임을 갖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권위를 행사할 상황을 최대한 피하곤 합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권위는 실재합니다. 권위의 남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권위를 소홀히 하거나 거부하는 것도 실재입니다. 자신의 방식을 찾기 위해서 개인적인 고찰과 함께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과 의미있는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와 카운실은 우호적인 논쟁상대이며 무의식 중에 돕는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통제를 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내믹이 “목회자와 카운실: 누가 상사인가?” 라는 모듈의 초점입니다 (16쪽).

고찰을 위하여:

1. 여러분이 처한 현재 상황에서 사람들은 말씀의 사역자이며 말씀을 해석하는 권위자,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삶의 안팎을 보여주는 목회자인 당신을 어떻게 여깁니까?
2. 여러분의 안수 받을 때의 맹세를 실천하면서 여러분은 권위의 실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합니까? 신학교에서 학문적으로 배운 것과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서 배운 것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서술해 보십시오.
3. “강력히 주장하는” 방식에서 “매우 조심하는” 방식에 이르는 범위 내에서 당신의 권위가 어떤 스타일인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과 권위의 관계가 어떻게 안수를 받으려는 여러분의 동기와 만나겠습니까? 목회자로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대합니까,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4.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쉼을 얻는 권위가 바로 빌립보서 2장에서 설명하는 순종을 통해서 세워지는 권위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목회자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권위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권위 역시 의지적인 순종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이 어떻게 여러분의 카운실과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카운실 (Council)

비고: 북미주 개혁신교회 사역자 행동윤리강령(Code of Conduct for Ministry Leaders)은 목회자들이 검토해야 할 중요한 자료입니다.⁴ 권위의 권력의 사용과 남용에 대한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충분한 속고는 학대방지 사역부 웹사이트 에 나와 있습니다.⁵

4 <https://www.crcna.org/synodresources/crc-code-conduct-ministry-leaders>

5 <https://www.crcna.org/SafeChurch>

목회자와 교회 카운실 간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한편으로 목회자는 리더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회자의 의견은 안수와 청빙, 학문적 트레이닝, 공동체 내에서의 공적이고 중심적인 역할로 인해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목회자의 리더십 역할은 카운실이 회의의 자리에 목회자를 의장으로 두는 것으로 강조되었습니다.

목회자가 회중을 이끌도록 부르심을 받았어도 (북미주 개혁교회 교회헌법에 따르면) 청빙한 교회의 카운실이 목회자의 삶, 교리, 의무에 대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의장이 될 수 있고 의장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전역을 포함한 어떤 관할권에서는 법적으로 목회자가 아닌 사람을 카운실 회의의 의장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자기가 지휘하는 조직의 카운실 회의의 의장으로 섬길 때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흥미로운 관계의 역학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카운실의 감독하는 권위에 복종하고 카운실도 안수받은 말씀의 사역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잠재적이고 의도적인 복종이 쌍방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카운실 양측 다 마찬가지로 적절하면서도 은혜롭게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운실의 영적 리더인 목회자에 대한 존경이 너무 깊고 풍성할 경우 너무 쉽게 자기 의견을 양보하는 유혹에 빠지고 쓸모 없이 수동적이 되어 목회자가 지나친 권위를 행사하고 통제하도록 허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실도 도를 넘어설 때가 있어서 목회자가 지나치게 카운실과 평화를 유지하느라 예민해져서 반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복음 안에서 목회자와 카운실은 협동해서 일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축복을 드러내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고찰을 위하여:

1. 카운실 회의실에서 여러분의 의견의 무게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의 무게와 비교해서 어떤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혹은 덜 말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들릴 수 있도록 어떻게 여러분이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2. 카운실과 목회자들은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집니다. 말씀의 사역자의 역할에 속하는 특정한 권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카운실의 권위와 비교 혹은 대조할 수 있겠습니까?
3. 지금의 사역 상황에서 카운실과 목회자 중에 누구에게 최종 책임이 있습니까? 사실상 누가 보스인지 여러분 공동체의 기본적인 기대치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4.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서 카운실과 목회자가 모두 권위를 행사하면서도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협동의 정신이 어떻게 계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설교표절

어느 목회자가 저널에 다음의 글을 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부담감이 큼니다. 매주 성경적이면서도 주해적으로도 탄탄한 새로운 설교를 쓴다는 것에 마음이 주눅듭니다. 초등학교부터 노인에 이르는 다양한 청중의 기호를 만족시키는 것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오, 때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그럭저럭 해 내지만 최근 들어서 이 무능한 느낌이 점점 강해지고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심이 깊고, 일관되고,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지칩니다. 때때로 제가 끌어 올릴 수 있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때로는 마비시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전보다 더 많이 온라인에 접속을 했습니다. 훌륭한 설교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사람들은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충분히 잘 하고 있는지 걱정이 더 심해집니다. 오! 온라인에는 정말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예시와 관점들로 가득한 수많은 설교원고와 영상들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처음에는 누군가의 말과 글을 인용하고 저자의 이름을 언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제 설교의 많은 부분이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설교자의 생각을 빌려오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건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빌렸다”는 말이 이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청중이 축복을 받고 내가 걱정하지 않는다면 잘못도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23-24).

고찰을 위하여:

1. 강대상에서 여러분의 적절함과 부적절함에 대한 씨름을 고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찰은 내용과 스타일 둘 중 어디에 더 달려있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다? 설교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장 큰 두려움과 가장 큰 소망을 설명해 보십시오.
2. 회중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역할의 일부라고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자부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궁극의 겸손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앤디 크라우치는 그의 책 “강자와 약자”에서 “훌륭해지려면 권위와 연약함, 능력과 취약점 모두를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⁶ 설교란 우리에게 강하면서도 약하라고 (취약하라고) 요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경험속에서 어떻게 맞는 말입니까?
3.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여러분의 사역 대상인 공동체와의 관계와 어떻게 관련됩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의 공동체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여러분의 진실성의 다이내믹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4. 외부 자료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으로 어두운 측면과, 또 사용한 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도움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5. 목사가 설교표절을 정당화하는 이유나 상황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유혹에 대해 어떻게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하시겠습니까?

⁶ Andy Crouch, *Strong and Weak: Embracing a Life of Love, Risk and True Flourishing* (Downers Grove, IL: IVP Books, 2016), 11.

성도와 의 우정

우정의 매력은 실재하며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경계심을 풀고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안전감과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를 잘 알고 사랑하며 서로 삶을 나눌 만큼 우리에게 마음을 쓰는 사람과 톡 터 놓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그 가정은 종종 낯선 장소와 환경에 처하게 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로움과 싸우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종종 다가와서 우정을 쌓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것이 선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의해야 하고 분별이 필요한 복잡한 다이내믹이 있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옛 속담에 “기차에서 선물 들고 찾아오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목회자와의 우정에 댓가를 바라고 가치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특권, 어쩌면 정보에 대한 접근, 영향력을 끼치는 핵심그룹에 끼고 싶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는 이 속담이 충분한 진리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질병 혹은 슬픔 혹은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 이상을 원하는 평신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그 평신도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단지 친구 이상이 되어야 할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우정에 대한 필요가 여전히 남습니다. 이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는 목회자가 그 자신과 자신의 목회자라는 역할 사이의 만나는 지점에서 발견하는 기이한 도전입니다. 목회자는 사람이지만 안수를 받음으로써 이 사람들은 목회자가 됩니다. 이 두 실재를 우리 마음 속에서나 다른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완전히 분리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찰을 위하여:

1. 누구와 우정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우정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우정의 긍정적인 측면을 경험하도록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2. 다른 성도들이 그들의 목회자가 자신들의 공동체 내에 친한 친구, 혹은 친한 친구 무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나쁜 어떤 요소들이 작용할 것 같습니까?
3. 여러분이 사역에서 외로움을 경험하는 방식들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이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또는 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4. 개인이자 목회자인 여러분의 정체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우정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관리

목회자들에게도 출퇴근 도장을 찍는 시스템이 있다면 훨씬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의 매주 업무 시간이 정확하게 청빙레터나 사역 직무기술서에 적혀 있다면 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명이자 사례비를 받는 역할로써의 사역은 일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역의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 시간이나 할당 시간 측면에서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나요? 성경공부를 준비하거나 심방전화를 하는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텍스트를 읽고, 깊이 생각하며 이해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역은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되기 매우 쉬운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일이 절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역은 또한 누군가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매 순간 여러분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너무 적게 하게 될 수도 있는 직업입니다.

한편으로 목회자는 매우 유연한 일정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 없는 요구에 직면합니다. 이 일 혹은 저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당할 것인지, 또 일이 언제 끝날지는 대부분 조율이 가능합니다. 사역자는 종종 집을 떠나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꽤 자유롭게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관리라는 문제에 목회자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가용 시간들에 어떻게 우선순위로 놓아야 할까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순간이 과연 있을까요?

고찰을 위하여:

1. 여러분의 사역에서 전형적인 업무 주간의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 업무 패턴으로 인한 여러분 내면의 평안, 죄책감, 섬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2. 사역이 제공하는 유연한 일정을 어떻게 조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뜻밖의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아킬레스 건은 무엇이었습니까?
3. 목회 사역에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고 어렵게 만드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의 시간관리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목회자 역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선택들을 하셨습니까?
4. 여러분의 사역 상황에서 목회자 역할에 대한 기대와 (대놓고 말로 표현하든 안 하든) 목회자 역할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기대와 어떻게 만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관리에 대한 기대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설교라는 이벤트

목회자의 사역은 매우 공적이고 전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성경의 메타내러티브와 특정한 공동체의 일상의 내러티브와 만나는 지점에서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끊임 없이 만나는 지점을 세우도록 도와서 성경의 이야기가 진실되고 은혜롭게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에 전달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라는 장기적인 관점에 포커스를 두면서도 지금 여기의 구체적인 상황에 직접적으로 호소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가 다양한 것처럼 설교에도 목회자마다 다양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교사나 강사 같기도 하고 어떤 목회자는 믿음의 변호인 같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부드러운 목자같은 목회자도 있고 어떤 이들은 영감을 주고 동기부여를 하는 연사 같기도 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괴로워 하는 사람들을 위로 하고자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편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가하기도 합니다.

안수받은 말씀의 사역자에게 우리의 설교 패턴과 설교 내용과 목적을 알리는 것 이면에 다른 목회적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우리 내면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이러한 필요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적 필요란 종종 거기에 그냥 있을 뿐 연구되거나 표현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가 명확히 설명해야 할 진리에 “나 주가 말한다” 라고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필요에서 하나의 설교가 나옵니다. 또 목회자가 소망을 가지고 고통 받는 사람을 위로해야 한다는 필요는 또 다른 종류의 설교가 됩니다.

설교는 자신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 사이의 교차지점에 서서 그들을 대하는 자기확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은혜에 의지하고 뜻밖에 내리시는 은혜를 아는 연약함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설교자는 예수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자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고찰을 위하여:

1. 설교에 있어 여러분의 어려움이나 두려움, 여러분이 즐기는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설교가 어떻게 여러분을 주눅 들게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을 신나게 합니까? 이 모든 여러분의 현실과 느낌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2. 설교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추정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 추정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설교 내용, 스타일,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설교는 꽤 예상가능한 편인가요, 아니면 좀 다양하고 균형 잡힌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시나요? 설교준비에 대해서 언제 자신감이 드나요?
3. 여러분의 설교를 듣는 청중이 갖는 필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필요가 어떻게 여러분의 설교 준비와 전달에 영향을 미칩니까?
4. 설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설교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부모, 형제자매가 있었고, 그의 유려한 말씀으로 설득하신 것도 그 존재였으며 그가 존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다이내믹에 관한 무언가는 복음을 설교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지속됩니다. 목사는 사람이며 회중과 그 회중을 둘러싼 커뮤니티 내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은 진짜 인간으로 판명난 누군가에 힘입어 말할 때 더 큰 무게가 실리고 영광이 더해집니다. 사람들이 목회자가 신앙, 돌봄, 성실함에서 진정성을 보일 때, 즉 사람들이 목회자의 인간으로서의 진실성을 경험할 때 훨씬 더 열린 마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가 말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회중이 목회자가 깊이 그리고 정직하게 돌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말씀이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하여도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그들이 은혜받을 확률이 떨어집니다.

설교자가 그들의 마음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헌신, 소망, 사랑, 고통, 열망에 대해서 말한다는 점에서 설교는 친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잇고자 합니다. 설교가 설교자의 내면의 삶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의 내면의 삶은 드러나게 됩니다. 설교자는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 어떻게 설교자는 인간적으로 설교하면서도 그 자신의 심적 고통, 어려움, 도전 등에 대한 부적절한 세부사항까지는 나누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고찰을 위하여:

1. 여러분의 설교가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삶과 얼마나 공명합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가족의 삶까지 포함하여)이 설교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그것을 거부하나요? 왜 그렇습니까?
2. 설교가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청중이 목회자의 인간됨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설교자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반면에, 여러분의 회중과 공동체 멤버들은 여러분의 어떤 점을 경험합니까?
3. 여기에서 안수받은 사역 리더들을 위한 북미주 개혁신교회의 [행동윤리강령](#)이 어떤 관련이 있을지 연구해 보십시오.⁷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4. 여러분의 사역 환경이 여러분의 설교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혹은 어떻게 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기대치와 얼마나 잘 맞습니까?

⁷ <https://www.crcna.org/synodresources/crc-code-conduct-ministry-leaders>

설교자와 본문

설교할 본문을 찾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몇몇 교회 전통에서는 미리 뽑은 본문이 있는 성서정과(lectionary)를 제공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성경의 어떤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전통에서는 목회자들이 직접 자신이 설교할 본문을 선택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면 매주 결정하기도 하고 더 큰 계획의 일부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스케줄 변경이 불가피한 순간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현재 당면한 심각한 사건들이 기존에 계획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본문을 선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급한 필요든지 아니면 더 장기적 계획으로 인한 선택이든지간에 어려운 점은 성경의 모든 범위가 잘 커버되는지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선지서, 역사서, 모세오경, 지혜서, 복음서, 서신서, 예언서는 성경의 모든 책들이 이에 속하며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야기를 창조된 우주와 관련하여 말해 줍니다.

성서정과는 교회 전통에서 제공하든지 목사가 계획하면서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든지 무엇보다도 성경 읽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공동체와 개인의 이야기가 만나는 교차 지점에 서는 것은 전략적으로 거룩한 땅에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먼저 정하고 메세지나 중점을 뒤야 할 부분을 기도와 연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주제나 중점되는 부분을 먼저 고르고 그 주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본문을 고르고 싶은 치명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모든 설교자들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그들의 아젠다가 그들이 성경을 사용하는 방식을 형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과 성령님이 설교해야 할 아젠다와 목회자를 사용하시려는 방식을 위해서 아젠다를 놓아 주시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고찰을 위하여:

1. 여러분이 선택하는 설교본문과 패턴이 어떤지 점검해 보십시오. 어느 특정한 타입의 본문을 너무 자주 설교하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설교에 유난히 찾아보기 어려운 성경의 장르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개인으로서의 여러분이 이런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2. 여러분이 설교하는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역할의 특성이 여러분이 설교할 본문을 고르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리고 설교의 메세지를 성경이 아닌 다른 책에서 찾는 습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런 교차지점이 여러분의 목회자로서의 역할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관련이 있다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3. 여러분이 고른 설교 본문은 현재 여러분의 공동체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조언을 듣거나 협동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보상과 위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단지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적절하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 좋거나 나쁘거나

배우자의 지지와 배우자와의 우정을 누리는 경험을 하는 사역자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배우자는 사역의 기쁨, 스트레스, 도전을 가장 앞자리에서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최선의 경우 배우자는 사역자에게 조건 없는 사랑, 격려, 버팀목이 되어 주고 안전하게 쉴 곳이자 현실을 직시하도록 해주는 축복입니다! 배우자는 친구이자 동반자이며, 목사가 목회자 역할과 별개로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더 나은” 것을 한아름 안겨 줄 수 있는 것처럼 “더 나쁜” 것도 한 보따리 안겨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배우자들은 담임 목사에게 과도한 영향력과 통제력을 행사하며 목회 안건의 내용과 형식 모두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배우자들은 사역을 하는 자기 배우자의 역할을 불편하게 여기며, 때로는 아예 사역에 전혀 관여하지 않기도 하고 무심코 사역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유익하고 꼭 필요한 참여를 위해 적절한 바운더리를 세우는 것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은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혜, 창의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잘하면 배우자들은 서로 함께 존재하고 서로가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만들도록 돕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역자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회중에 의해서 청빙된 사람이고(대부분의 경우), 배우자가 사역자인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다이내믹을 복잡하게 하는 것은 목회자와 회중이 배우자에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기대들은 대놓고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수면 아래 은근히 도사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대를 찾아내고 이에 대해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배우자와 목회자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결혼관계의 건강은 사역의 능력과 기능에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것은 “배우자 및 연인: 친구, 가족, 사랑하는 이들” (p.36) 모듈에서 다룹니다.

고찰을 위하여:

1. 안수받은 사역자의 역할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여러분의 웰빙을 증진시키는 데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떻게 도와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평범한 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을 어떻게 격려하며 여러분에게 어떻게 버팀목이 됩니까?
2.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는 개인과 사역자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바운더리를 어떻게 조율하고 존중하나요? 언제 사역자의 역할이 개인으로서의 당신을 방해하나요? 배우자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사역자 역할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3. 의도적으로 혹은 무심코 여러분은 사역자 배우자에 대한 기대들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기대들을 조율하고 그 중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영성 훈련인 경청

목회자들은 주기적으로, 민첩하게, 존중의 태도로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 특히 목회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경청은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과 최선의 주의력을 필요로 합니다. 목적은 화자, 즉 언제나 중요한 “타인”이 지금 상대방이 자기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귀, 눈, 마음 즉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필요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죽이고 끼어 들어 말하고 싶은 것을 참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 존재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전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겸손과 의지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이는 환대를 위한 기본자세입니다.

종종 목회자의 경청을 정기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목회자가 견디기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청하기 위해서 먼저 달래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 시끄러운 목소리, 요구하는 목소리, 반대하는 목소리, 조용한 사람들, 권위적인 목소리, 주눅든 목소리, 반항하는 목소리 등이 있고 아마 이외에도 더 많을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힘든 점은 문제에 대한 답이나 해결책, 주옥 같은 말을 해 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있다고 확신을 주기 보다 답을 준비하기 위해 집중을 못하게 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 우리의 대답,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상대의 목소리를 밀어내게 됩니다.

회의에서, 차 마시면서, 병상에서, 교회 끝나고 주차장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성경과 창조물, 사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하며 마음과 지성이 변화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고찰을 위하여:

1.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편안함과 불안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경청의 자세에 강점과 약점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듣는 것보다 무언가를 더 해야 할 것만 같은 유혹을 왜 느끼나요?
2. “듣기(listening)”가 수동적인 자세를 시사하는 반면에 “목양적 돌봄을 제공(Providing pastoral care)”한다는 것이 더 적극적인 자세를 암시합니다. 이것이 적절한 설명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의 역할이 사람을 어떻게 그냥 듣기보다 무언가를 더 하는 것에 치우치게 합니까? 목회적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이 여러분을 위축되게 하는 편입니까? 왜 위축되며 왜 위축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3. 목회적 돌봄과 관련된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 내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기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성경읽기와 기도가 어떻게 경청의 영적 훈련과 잘 어우러지거나 반대로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잡담(Small Talk) 사역

모든 회의, 설교 준비, 예배 기획, 가르침, 행정 및 긴급한 목양 가운데에 목회자에게는 특별한 용건 없이 교감하고 교제하기 위한 종종 “잡담(small talk)”이라 불리우는 목적을 위한 심방요청이 있습니다.

잡담이라는 말의 “작은 (small)”이라는 형용사에서 잡담 말고 더 중요한 할 말과 할 일들이 있다는 뉘앙스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커피를 두고 수다를 떨 시간이 없다고 “차 한잔 하자”는 요청을 거부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더 실재적인 문제나 염려가 있다면 좋습니다. 목회자가 참석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물론 가야 합니다. 하지만 한 성도 개인의 집에서의 잡담이나 직장의 휴게실에서, 혹은 마트의 한 진열대에서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은 어떻게 사역현장의 요구를 처리하고 관계라는 천을 짤 때 어떤 실을 잡는지를 통해서 회중과 공동체에 그들 신학의 상당 부분을 전합니다. 목회자는 또한 회중과 공동체 안에서 안수받은 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상당 부분을 소통합니다.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 신학 영성에 대한 축정은 수영장 가장자리 수심이 얇은 부분 같은 곳에도 존재하는 영적 깊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살피는 것을 포함합니다. 영성이란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매일의 삶의 너트와 볼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삶이라는 매우 특별한 차원은 일상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것에는 일상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멋지고 신비한 실재는 우리의 삶과 피가 되시는 일상의 모든 것으로 가득한 비유의 교사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강조됩니다.

고찰을 위하여:

1. “잡담”의 다이내믹과 요구에 대한 여러분 개인적인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반응을 잘 하든지 못하든지 왜 그렇게 반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잡담에 사람들을 초청하나요 그리고/혹은 어떻게 잡담으로부터 피하나요?
2. 어느 정도 혹은 어떤 스타일의 교제를 하는 것이 목사인 여러분에 대해서 그리고 신학에 대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것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성육신이 창조주와 창조물에 대해 말해 주나요, 그리고 이것이 목회자 역할과 어떻게 관련이 됩니까?
3. 여러분의 사역 상황에서 만나는 “잡담”과 관련된 노골적 기대와 드러나지 않는 기대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이러한 기대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역사와 신학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고 있으며 여러분과 그들을 위해 어떻게 교제하려고 생각하십니까?

힘든 사람과 건강한 공동체의 교차점

각 교회 공동체 내에는 전형적인 인물들이 있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 중에 한 가지 유형은 대하기 힘든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카운실 회의든, 사교를 위한 자리든, 예배 마친 후가 되었던 그 공간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분위기가 달아오를 수도 있지만 썰렁해 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긴장감이 커집니다. 까다로운 성격의 사람은 시끄럽고 원하는 게 많은 유형에서부터 조용하지만 체제전복적으로 저항적인 유형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때로 공동체는 이런 어려운 행동에 맞서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종종 지속적인 분열보다 공동체가 점점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하기 어려운 성격의 사람들은 공동체의 건강한 정도를 크게 드러내고 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에게 한 개인의 행동과 그 행동에 대처하는 공동체의 방식으로 인한 절망은 쉽게 자리잡습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일반 통념이 공동체가 그 까다로운 개인을 다루는 방식과 관련이 있지만, 동시에 목회자는 유익한 영향력을 제공하고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찰을 위하여:

1. 여러분이 겪고 있는 대하기 힘든 개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여러분의 타고난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라면서 겪은 가정에서의 경험과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2. 여러분의 사역 공동체가 잘하든 못하든 이렇게 힘든 성격과 행동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묘사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쳐 왔습니까?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것과 관련된 기대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기대가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3. 여러분이 관찰해 온 그 다루기 어려운 행동들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 오셨나요? 이런 어려움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여러분이 목회자 역할 내에서 가진 영향력은 어떤 것입니까? 이외의 다른 것들도 숙고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갈등: 분명하게 현존하는 위협과 기회

모든 관계에는 성격, 관점, 우선순위, 필요, 기쁘게 주고 받는 것 그 이상으로까지 하려는 것에 차이가 보이는 순간들이 늘 존재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더욱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 종류의 차이가 보이면 어느 시점에는 갈등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갈등을 피하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억누르고 마지못해 받아들이거나 화제의 방향 및 화제 자체를 바꿉니다. 잘 처리되지 못한 갈등은 고통스럽고 파괴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에서 갈등을 피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친절, 사랑, 하나됨이 넘치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어 성령님의 풍성한 임재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지 못해서 하는 반대는 관계의 틀어짐, 분노, 심지어 분열로 이어지고 반대하는 이유가 “옳고자” 하는 의도이거나 성경적, 교리적으로 튼튼하기 위함일 때 더욱 심합니다.

갈등은 예상 가능한 패턴대로 발전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고 해결을 위해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할지 등을 분별할 때는 이러한 패턴들을 이해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사실상 갈등은 위협과 기회 모두 포함합니다. 잘 다루지지 않은 갈등은 불이 붙어서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해버리면, 예상할 수 있듯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나중에 폭발합니다. 그러나 갈등을 잘 다루면 주의 깊은 경청, 상처와 슬픔을 표현하며 화해를 위한 순간들을 세워가는 것을 포함한 건강한 대화를 위한 자리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전능하신 하나님 사이의 갈등을 언급할 때,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십니다. 갈등은 스스로 불타게끔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갈등을 회피하고 지하에서 부글부글 끓도록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양의 용기와 사자의 연약함으로 직면하셨습니다.

고찰을 위하여:

1. 의도적인 회피에서부터 적극적인 기쁨에 이르는 범주 내에서 갈등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반응을 설명해 보십시오. 갈등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의 갈등에 대한 자세를 만들었나요?
2. 교회 공동체에서 갈등을 다루는 목회자의 역할을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적절하면서도 목자와 같이 화합을 원하는 마음과 성경적이며 교리적으로 옳기를 원하는 마음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3.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직면한 갈등을 설명해 보십시오.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현재의 갈등에 접근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즉각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고 장기적으로 다루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필요에 관여한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충돌하는 가치의 딜레마

예수님은 유일하고 완벽하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 균형은 예수님 외의 사람에게서는 이상적인 것으로 남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종종 경쟁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적으로 오직 은혜만을 강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전적으로 오직 진리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이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건강한 긴장 속에서 은혜와 진리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과 쉼이라는 창조적 패턴을 따릅니다. 겉보기에 반대인 것 같지만 둘 다 꼭 필요하고 서로 의존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들숨과 날숨의 창조 패턴은 이 중 하나만을 고를 수 없습니다. 이 둘은 상호의존적이며 필수적이면서도 반대의 관계입니다.

상호의존적이고 필수적이며 경쟁하는 가치의 양측이 건강한 긴장을 잃으면, 즉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양극화로 귀결됩니다. 양극화는 우리가 도덕성이나 모든 정치적인 이슈들을 고려할 때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며 우리를 둘러싸는 친숙하지만 반갑지 않은 다이내믹입니다. 양극화는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반대의 진영으로 분리시켜서 함께 대화, 경청, 배움,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진리와 은혜, 전통과 혁신, 개인의 건강과 공동체의 건강, 교회 안의 사람을 돌보는 것과 교회 밖의 사람을 돌보는 것 등이 상호 의존적이며 필수적이며 서로의 존재가 없이는 불안정한 경쟁적 가치의 조합의 예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경쟁하는 가치들이 함께 다뤄야 할 차이가 아니라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여겨지면 양극화라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풍성한 사역은 이러한 경쟁하는 가치들이 건강한 긴장 속에 존재하여 서로 대화하고 밀고 당기며 모든 길의 발걸음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경쟁하는 가치들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더 깊이 이 주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 내의 양극화 관리”라는 책을 권해드립니다.⁶ 이 책의 저자들은 모든 교회 내에 존재하는 8가지 양극화를 찾아내어 연구하였습니다.

고찰을 위하여:

1. 여러분 내면의 경쟁하는 가치들을 찾아보시고 특정한 방향에 기대려는 여러분 스스로의 경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경향성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겠습니까?
2. 여러분의 설교, 강의, 목양의 내용과 스타일을 고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역할 때 어떻게 경쟁하지만 서로 의존하는 가치들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이는 여러분 내면의 균형에 대한 증언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사역환경의 경향성에 대한 대응에 가까운가요? 설명해 보십시오.
3. 여러분의 현재 사역환경에서 마주하는 양극화된 개념들을 찾아 보고 어떻게 그런 개념들이 다뤄지는지 유익하게 다뤄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⁶ Roy M. Oswald and Barry Johnson, *Managing Polarities in Congregations: Eight Keys for Thriving Faith Communitie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10).

처음 마주하는 사역

모든 사역자의 삶에는 여러가지 중요한 처음으로 사역을 행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첫 성찬, 첫 세례, 첫 신앙 고백 혹은 입교예식, 첫 장례식, 첫 결혼식, 첫 병문안, 첫 성탄절, 성금요일, 부활절 등등...

이러한 순간들은 많은 질문과 궁금증이 생기는 때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행해졌을까요? 전통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넓은 의미에서 교회 내에서 혹은 특정한 사역 환경에서 계속 확증되고 지속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자신의 개인과 사역이 이러한 전통을 확장하고 증진시키거나 도전해야 하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고, 어떤 전통들이 유익하고 희망찬 혁신을 통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처음 할 때는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목사로서 처음으로 이들 상당한 역사(구체적인 패턴, 기대, 중요성, 예상, 결과)가 가득 담긴 매우 구체적인 순간과 마주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개인, 역할, 상황이 만나는 특별히 실제적이며 역동적이고 풍성한 순간입니다.

다음은 처음하는 두가지 사역의 견본입니다. 처음하는 이들 사역의 예를 보고 싶으실 것입니다. 모든 멘토링 모듈과 함께 각각의 소명의 세가지 원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유익하실 것입니다.

장례예식

장례식에는 상실, 슬픔, 감사, 겸손, 우리보다 훨씬 크신 그분에 대한 예배 등 여러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장례식은 예수님의 복음이 인간에게 그리고 창조물 전체에게 주는 소망의 차원에서 우리의 경험을 보라고 요청합니다. 장례식에는 후회, 애통, 가슴 아픈 기억, 웃음, 감사 등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의 삶이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에 뿌리를 내리고 밝고 의미있게 존재하는지 단순하면서도 깊게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목회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들과의 연결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격식을 갖춘 기도와 성경 봉독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풍성하고 따뜻하며 상당한 기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도 합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깊고 표현할 수 없는 무게를 실어 나를 예식이 다 있으며 이는 존중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불드는 한편 죽음, 상실과 슬픔의 현실을 겪고 있는 공동체를 도울 때 여러분에게는 창의적이고 심지어 장난스럽기까지 할 수 있는 상당한 자유도 있습니다.

고찰을 위하여:

1. 죽음과 장례식에 관하여 여러분이 예전에 알았으면 좋았겠다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불확실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릅니까?
2. 여러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을 다스리는 방식은 여러분 개인사 및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3. 여러분의 역할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며 잠재적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보다 우선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목사이며 사람인 자신을 어떻게 조율하겠습니까?
4. 생명을 잃는 것과 장례예식을 둘러싼 어떤 전통, 예식, 패턴들을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발견했습니까? 무엇이 놀랍습니까? 어떤 질문들이 생깁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으로서의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학이 어떻게 이 공동체와 만날까요?

성만찬

목회자의 핵심 특권은 성례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사역지에 따라 빈도수나 형식상의 절차가 크게 다릅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신 후로 기독교 모임과 예배의 중심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만찬의 기원은 더욱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이후 시내산 기슭에서 모였을 때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통을 조율하며 변화를 상상하고 개인적인 선택을 추가하려면 신중하고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북미주 개혁교회 역사에서는 함께 사용하는 성찬배를 단지 개인 성찬잔으로 바꾸는 것 가지고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열린 성만찬을 하느냐 참여에 제한을 두느냐, 어린이들을 참여시키느냐 마느냐 등 성만찬을 주고 받는 것의 다양한 방식이 모두 교회들마다 대화와 논쟁의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함께 모인 공동체의 핵심 훈련과 만나는 핵심적인 목회자의 특권의 가장 중요한 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사람들은 아마 자신들이 의식하거나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한 번도 말로 명확히 표현해 본 적 없는 강한 느낌과 확신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강한 느낌과 확신은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공동체 내의 목회자 역할에 인식으로 현실화 됩니다. 성례를 집행할 때 목회자는 가시적인 중재인의 자리에 앉습니다.

고찰을 위하여:

1. 이 성례를 집행하기 위해 부르심 받은 여러분의 특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찰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신나고, 놀랍게, 그리고 또는 부담스럽게 하는지 묘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2. 이 특권에 따라오는 권위와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하거나 무겁게 하는지, 또 신나게 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3. 지금의 공동체에서 성례에 관한 어떤 전통, 예식, 패턴이 있는지 알게 되셨나요? 여러분을 놀라게 한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질문이 생기나요? 어떻게 이 성례가 이 공동체의 삶에 기능하는지 설명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 리더십과 조직 리더십의 교차점

목회자의 자신의 사역에 대한 상상과 목회자가 알게 된 실제 사역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상당한 독서, 사색, 기도, 설교 준비 그리고 목양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와 같은 소명에 뜻을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끝이 없어 보이는 회의들, 행정적인 세부사항, 교회 직원들, 교회 카운실, 사역팀들 내의 관계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의 리더로서의 업무에 시간과 힘을 엄청나게 소모한 목회자는 부르심 받은 목회 리더로서의 업무를 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멤버십, 출석, 변하는 교인 구성, 변하는 지역 사회, 재정, 평신도 봉사자들의 번아웃 등 교회의 궤도에 대한 염려들이 있을 때, 조직으로써의 교회의 건강에 대해 관심이 쏠립니다. 직간접적으로 목회자들은 압력을 느끼고 현실적인 트렌드, 통계 수치, 불안으로 인해서 목회자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집니다.

이 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유혹이 생깁니다. 시작하라. 만들어라. 실현시켜라.

일을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지혜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은혜의 진리를 신뢰하는 것같이 보일까요?

고찰을 위하여:

1. 목회사역이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과 어떻게 비슷하고 또 어떻게 다른지 경험을 이야기 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느끼는 부르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또 여러분의 웰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2. 말씀의 사역자라는 역할에 수반되는 기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가지는 기대와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기대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3. 여러분 공동체의 염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기존의 기대와 지금 생겨나는 기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염려들이 어떻게 의미 있으면서도 긍정적으로 다뤄질 수 있을까요?
4. 여러분이 복음 사역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고 최소화 시키며 집중을 방해하거나 재정의하게 하는 긴급한 기대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요?

피드백 및 학습능력

복미주 개혁교회의 모든 안수받은 사역자는 청빙한 교회 카운실에 책임이 있습니다. 카운실은 교리, 삶, 의무의 영역에서 목회자를 감독합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감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지는 교회마다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목회자를 수 년간의 신학 교육을 받은 영적 리더인 교회의 수장으로 보기 때문에 카운실 멤버들이 감독의 역할을 행사할 때 망설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카운실 멤버들은 자신들이 청빙한 목사의 일 작은 것까지도 일일이 감독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고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몇몇 목회자들은 감독을 전혀 받고 싶지 않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목회자들은 감독하는 카운실이 책임을 지는 것에 기꺼이 따르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들 내에서 감독의 다이내믹은 전부 피드백을 주고 받는 것에 있습니다. 교인들은 여러가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런 피드백에 열려 있도록 부름 받았습니.

어떤 피드백은 긍정적이고 격려가 되는 진리가 넘치는 은혜일 것입니다.

어떤 피드백은 도전이 될 것이며 어쩌면 고통스럽기까지 할 것입니다. 은혜스런 진리이기를 바랍니다.

피드백을 주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 주제에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드백은 분별이 공동의 다이내믹이고 겸손이 핵심 가치임을 전제로 합니다.

고찰을 위하여:

1. 여러분의 카운실로부터 공식적인 피드백을 어떤 식으로 받으시나요? 카운실 입장에서 그 과정이 쉬운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과정이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2. 여러분이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그 방식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이 비공식적인 피드백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목사로서의 역할을 더 잘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3.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어떻게 요청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자신이 긍정적인 확언을 얼마나 듣고 싶어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 대한 비판을 듣고 나서 어느 정도 움찔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4. 여러분은 얼마나 잘 배웁니까? 여러분은 학습능력을 어떻게 보여주나요? 여러분이 받은 피드백을 누구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까?

선 넘지 않기: 친밀감

아기가 태어났을 때와 아기가 아플 때, 결혼생활이 시작될 때와 결혼생활이 어려울 때, 신앙이 꽃피울 때와 그 신앙을 끌어줄 사람을 찾아 다닐 때, 번성의 때와 상실의 때와 같이 사람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의 대단한 특권입니다.

목회자들은 고통스러운 순간, 소중한 순간, 온통 연약한 순간을 지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순간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의 장막을 걸고 목회자들이 꽤 친밀하게 그들의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신앙고백의 순간, 감정적 순간, 필요한 순간, 열망의 순간, 절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즉, 사람 사이의 바운더리가 낮아질 때가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바운더리가 지켜져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친밀한 대화로 들어가는 것은 목회자의 특권이지만 이와 더불어 바운더리를 존중하는 것도 목회자가 지켜야 할 상당히 중요한 책임입니다.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에는 개인적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직관적 충동을 자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목회자에게 속사정을 털어놓은 성도의 친밀감에 추가로 기름을 부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을 특히 어렵게 하는 것은 성도와 목회자 모두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평상시 목회자-성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목회자는 이 다이내믹, 종종 “전이와 역전이”라 부르는 이 다이내믹이 사역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인식하는 등의 목회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고찰을 위하여:

1. 사람들이 그들의 속으로 하는 생각, 느낌, 남에게 말하지 않은 경험같은 사적인 공간에 여러분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들이 어떻게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와 연결되고 그 일부를 소환하는지 설명하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2. 바운더리가 낮아지는 것과 동시에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의 역설적 다이내믹을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목회자의 책임이 성도와 여러분 자신을 충분히 보호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3. 목양 돌봄의 관계를 다룰 때 유익하거나 방해되는 여러분 사역 현장의 기대들과 관습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면서도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은밀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요?

선 넘지 않기: 비밀 보장

교회 내의 리더들은 (특히 목사들은) 결국 알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못된 행동을 하거나 상처주는 말들을 하거나 깊고 오래 지속된 마찰에 불이 지퍼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목회자들이 악독의 존재를 알고 경험함으로써 인해 깜짝 놀라게 되는 순간들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목양적 돌봄의 대화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상처 받고 화가 나서 폭언을 퍼붓는 사람들과의 소통의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며 회의 중에 생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보통 비공개로 발생합니다. 갈등은 의미있는 대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파괴적 능력을 가진 거칠고 상처 주는 말들이 오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어렵고 어려운 일들을 아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보다 그 사람의 스토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은 무거운 일입니다. 아무리 희망에 찬 리더가 되도록 부름 받은 사람이라도 교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은 마음이 무거운 일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 중에는 흥미롭고 즐거우며 심지어 매우 기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 목회자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 보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수 받을 때 한 맹세는 비밀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성도들은 그들이 비밀리에 목회자에게 한 말의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찰을 위하여:

1. 해롭고 상처되는 행동들을 지켜 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개인으로서의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게 될까요?
2. 사소한 정보나 더 중요한 문제 모두 포함하여 비밀 보장이 어떤 식으로 어려운지 설명해 보십시오. 비밀보장을 유지하면서도 보고를 받고 일 처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3. 여러분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이 (예: 배우자나 자녀) 직간접적으로 여러분이 나눈 비밀 때문에 그들이 알 수 있는 정보와 관련하여 시험에 든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리더십 그룹이 비밀보장을 유지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의미있게 처리될 수 있겠습니까?

선 넘지 않기: 자기 인식 및 자기 훈련

다양한 바운더리에 주목하는 것은 목회사역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목양에는 비밀 보장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은 굉장히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때 상대를 존중하면서 조심스럽게 항상 중요한 상대방을 위해 안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대일 대화든, 회의든, 강단에서든 자신의 정보가 부적절하게 공유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관계들이 만나고 다양한 차이와 갈등이 만나는 지점에서 차분하게 있으면서 대화를 가능하게 해야 하는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양극화된 문화에서 특히 그렇고 점점 더 양극화되는 교회 문화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에 대한 목회자의 관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바운더리를 잘 유지해야 하며 이는 매우 힘들고 지치는 업무입니다.

감사하게도 목회자들은 적은 감독을 받으며 자유 재량으로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의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건강한 속도 전환 혹은 일하는 도중 휴식을 취하는 것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희, 음식, 음료 혹은 인터넷 검색/조사 등을 건강하게 첨가할 수 있는 반면에 알콜, 게임, 포르노그래피 등의 유해한 중독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탈선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선을 지키려고 주의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은 단순한 시간 사용 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어려움입니다. 충족되지 않은 필요, 돌보지 못한 다이내믹, 갈등을 다루는 과정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등 수많은 압박은 채워지고 싶은 텅 빈 공허감과 개인의 바운더리가 좁아지는 것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인식과 자기 훈련에 관한 것입니다.

고찰을 위하여:

1. 여러분 자신의 권태, 피로, 무력함을 얼마나 돌보십니까? 한 사람이자 목회자로서 자신이 지나치게 소모된 것을 경고해 주는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 여러분이 스트레스 원인과 집중을 방해하는 것의 무게로부터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기분 좋게 머리를 식히는 방법을 설명해 보십시오. 이러한 필요를 대화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든지 누구와 나누나요?
3. 여러분의 리더십 그룹 (카운실)은 건강한 몸, 영혼,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격려하고 돕습니까?
4. 다른 사람의 압력 때문에 혹은 여러분 스스로 마음이 약한 것 때문에 바운더리가 지켜지지 않는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 “첫번째로 전화 통화할 사람”이 있습니까?

중요한 사람들: 목회자의 친구, 가족, 사랑하는 이들

목회자들은 소명을 받아 안수받고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목회자들은 독신인 경우도 있고 결혼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독신 목회자들은 그들의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와 함께 그들의 독신됨에 대한 질문들과 궁금증들을 잘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독신 목회자는 자신의 고립과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의 필요의 정도를 잘 다뤄야 합니다.

기혼 목회자들은 배우자의 다양한 정도의 지지, 격려, 방향에 대한 제안과 함께 목회자의 결혼의 웰빙에 대한 성도들의 추정들을 잘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배우자들은 사역의 요구에 대해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배우자들은 직접 지휘하고 기준을 세우는 등 사실상 목회자처럼 보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와 같은 극단적인 다이내믹은 사역하는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독신이든 기혼이든 자녀가 있든 없든 목회자의 개인적인 혹은 가정생활은 더 좋게 혹은 더 나쁘게 사역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다이내믹은 카운실이 목회자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찰을 위하여:

1. 여러분의 결혼여부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더 좋게, 그리고 더 나쁘게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들의 관여, 지지 혹은 외부의 영향의 정도를 설명해 보시고 그와 관련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 보십시오.
2. 가정에서의 여러분과 사역에서의 여러분을 어떻게 비교 및 대조 할 수 있겠습니까?
3. 여러분의 결혼 유무가 어떻게 목회자 역할을 행하는 것에 영향을 줍니까? 사역자로서의 위치가 여러분의 처신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4. 여러분의 결혼 혹은 독신과 관련하여 사역 상황에서 여러분이 겪은 기대와 가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컨텍스트에서 여러분의 사역과 가정 생활 사이에 바운더리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5.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성격과 존재가 여러분의 사역에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아이들이 목회자 자녀로서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중요한 사람들: 동료 목회자들

목회는 역설로 가득한 복잡하고 흥미로운 일입니다. 매우 신나면서도 지치는 일이기도 하지요. 목회자들은 어느 모로 보나 평신도와 같이 평범하고도 멋진 사람으로 존재하지만 목회자는 안수를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타인”으로 구별됩니다. 목회자들은 공동체에 속하여 영원히 속할 것처럼 그 안에서 살지만 다른 사람들이 속하는 것과는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목회자들은 인간과 신을 연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눈, 귀, 마음으로 항상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으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이런 목회 업무는 고통스러우면서도 포근한 것이며 일이면서도 놀이이고 공적인 장소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친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연구자 매트 블룸은 목회자 인생의 “중요한 사람들”과 “또 다른 중요한 사람들”의 핵심 역할이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타인들”은 목회자 입장에서 삶을 이해하며 지혜롭게 인도할 능력을 가졌으며 다른 사람의 직업적 소명을 확증하는 목소리를 내고 본보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인생에 중요한 사람들과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통해 목회적 감성을 계발하고 지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한 관계들은 “사막의 경험”이 될 수 밖에 없는 목회에서 꼭 필요한 오아시스입니다.

다른 목회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제를 하는 것이 전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목회자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역의 멋지면서도 고통스러운 다이내믹을 압니다. 그들은 목회의 긴장, 어려움, 그리고 흥분을 이해합니다.

고찰을 위하여:

1. 거울에 비춰진 사람을 묘사해 보십시오. 친구, 배우자, 부모, 아들 혹은 딸, 목사, 하나님의 형상인 전적으로 사람인 당신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2. 쉬는 날이라서 “목사 가운”을 벗은 때이든 아니든 목회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당신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고 감사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당신을 몹시 짜증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역의 역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3. 당신에게 매우 중요하고 꽤 중요한 “타인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직의 관계와 대화를 여러분의 삶으로 가지고 올 기회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직업으로 인해 생긴 파괴적인 외로움을 어떻게 다스리고 그것은 어떻게 목회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칩니까?

과도기를 다루는 지혜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인간은 과도기에 있습니다. 단세포에서부터 태어나는 날까지, 첫 걸음마를 떼고 처음 말하는 순간부터 자라고 성숙해지고 나이가 들고 죽을 때까지 인생은 손실과 성장, 상실과 성과의 연속입니다. 확실하게 정해진 현실은 없습니다. 창조물들도 성장하고 노화되며 상실과 성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도 발전하고 성장하며 성숙하고 잃기도 하고 과도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전통을 고수하는 쪽으로 기우는 사람들과 혁신을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양극화의 경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 이러한 경향성은 이것 아니면 저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양쪽 모두입니다. 우리가 굳건히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묻고 원기회복과 혁신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는 것은 항상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 중 한 가지만 묻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분열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다 하는 것은 대화로 가는 길이고 목회의 지혜로 진입 차선을 타는 것입니다.

과도기를 지나고 변화를 경험할 때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습니다. 기대와 기쁨이 있고 슬픔과 후회가 있습니다. 두 경험 모두 사실이고 두 경험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변화가 필요하지만 변화가 두려운 것은 열정과 흥분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상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오가야 하며 긴장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가는 것이 건강하고 역동적인 공동체입니다.

고찰을 위하여:

1. 과도기를 어떻게 경험해 왔는지 혹은 경험하고 있는지 말해 보고 그로 인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2. 전통과 씨름하는 공동체 내에서 목회자의 역할이 어떻게 만나며 기능할 수 있는지 혹은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고찰해 보십시오. 목사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 아니면 저것의 틀과 양쪽 다의 틀과 씨름하고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의 대화/관점과 외부적으로는 성직자로서의 리더십 역할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3. 여러분의 공동체가 과도기를 대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전통과 혁신의 문제를 양극화하는 방식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역 현장은 전적으로 은헤이면서 진리이기도 한 예수님을 반영해야 하는 여러분의 소명을 어떻게 다릅니까?

이야기가 들려질 때

이야기는 언제나 특정한 관점에서 전달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 교회나 목회자가 청빙 공고에 지원할 때, 자기 소개란에 자기 이야기를 적을 때 보통은 세 가지 기본적인 유리한 지점 즉, 영웅, 피해자, 악인이 있습니다. 영웅의 관점은 자신의 선하고 영예로운 의도와 행동을 말합니다. 희생자 관점은 상처와 불의를 말합니다. 악인 관점은 어떻게 깨어짐과 혼란을 야기시켰는지를 말합니다.

건강한 개인, 교회 공동체 혹은 조직은 그 스토리를 알고 세 가지 관점이 교차하고 맞물리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로서, 저는 저의 덕을 자랑하고, 제가 어떻게 상처 받았는지도 알고, 제가 지나치게 추했던 순간들과 은밀하게 남을 방해했던 순간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관점이 모두 포함되지 않으면 이야기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차이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식에 주목하는 것은 흥미로우며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목회자들과 함께 있을 때, 카운실 회의를 할 때, 성도들에게 말할 때, 혹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하는지 주목해 보는 것도 흥미롭고 유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이야기는 미묘하거나 혹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악인의 관점에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선한 의도를 가진 영웅이나 피해를 입은 희생자의 유리한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훨씬 더 능숙합니다. 깨어지거나 망가지게 된 것에 우리가 기여한 부분들을 반드시 인정해야만 하는 자기 검열이 일단 되어야 하는 어려움과 관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고찰을 위하여:

1. 여러분이 보통 자신의 개인적 이야기를 하는 관점을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족, 친구, 낯선 사람 혹은 하나님께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나타나는 차이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이러한 차이들을 설명해 줍니까?
2. 자기 인식을 설교자, 교사, 카운실의 멤버인 목회자의 역할에 어떻게 통합시킵니까? 리더십 회의에서 여러분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특정한 유리한 지점으로 기우는 것을 언제 느낍니까?
3. 여러분의 사역 공동체는 그 스토리를 어떻게 알고 말합니까? 사역공동체는 목회자 청빙 과정 중에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들의 스토리를 전했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영웅이자 피해자이고 악인에 모두 다 해당되는 목사 사람으로서 사역하도록 허용합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목양: 우리의 스토리와 하나님의 스토리가 만나는 곳

목양은 개인과 공동체의 스토리가 성경이 말하는 스토리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스토리들은 평등하게 만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더 크고 더 길고 더 깊은 스토리에 정박하고 그 틀에 속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와 우리 자신의 스토리를 말할 때 목회자들은 많은 시간을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지는지에 주의하는 데 씁니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관점을 잘 듣는 것이 유익하다면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우주와의 관계의 이야기가 어떻게 서술되는지 성경을 잘 듣는 귀를 갖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신학은 얼마나 균형잡혔습니까? 우리는 설교에서든 강의에서든 목양에서든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서술할 때 서로 다른 유리한 지점들을 어떻게 통합시키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직면하는 특정한 유혹은 인생의 어려운 질문에 답을 하고 교리와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되게 설명하고 자신감 있게 이끌면서 자신을 영웅적 역할에 주로 놓고 보는 것입니다 (39쪽 참조) 하나님의 스토리 내에서 자신을 높은 위치로 올리고 싶은 유혹은 다른 사람들이 투사하는 기대와 희망에서 오고 그 기대와 희망에 의해서 더 강해집니다. 우리를 스스로 영웅으로 보는 착각은 다른 사람들이 목회자를 영웅으로 보는 망상과 만나서 건강하지 않은 기대와 관습이 생겨나는 지름길이 됩니다.

더 나아가 목회자가 충분히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영적 문제들을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 목회자 자신의 내면의 영적 문제도 똑같이 잘 처리할 것이라는 놀랄만한 압력을 받습니다. 공적 인물과 사적 개인을 건강한 동시발생적인 사람으로 보는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찰을 위하여:

1. 성경이 하나님과 창조의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관점 (영웅, 피해자, 악인)으로 듣는 것이 유익하다는 제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접근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2. 목회자 역할을 하는 자로서 그리고 단순하게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서술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펴본 차이를 설명하고 이런 차이의 원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3. 사역하는 공동체 혹은 교회가 목회자가 영웅적으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목회자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목회자에 대한 이런 기대의 예상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4. 내러티브 관점에 대해 듣는 것이 그가 듣는 것과 대답 할 수 있는 것의 차원에서 어떻게 목양 사역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Reading for Further Reflection and Conversation

- Barnes, M. Craig. *The Pastor as Minor Poet: Texts and Subtexts in the Ministerial Life* (Grand Rapids, MI: Eerdmans, 2009).
- Barton, Ruth Haley. *Sacred Rhythms: Arranging Our Lives for Spiritual Transformation* (Downers Grove, IL: IVP Books, 2006).
- Barton, Ruth Haley. *Strengthening the Soul of Your Leadership: Seeking God in the Crucible of Ministry* (Downers Grove, IL: IVP Books, 2008).
- Beaumont, Susan. *How to Lead When You Don't Know Where You're Going*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19).
- Benner, David C. *The Gift of Being Yourself: The Sacred Call to Self-Discovery* (Downers Grove, IL: IVP Books, 2015).
- Bloom, Matt. *Flourishing in Ministry: How to Cultivate Clergy Wellbeing*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19).
- Bolsinger, Tod. *Tempered Resilience: How Leaders Are Formed in the Crucible of Change* (Downers Grove, IL: IVP Books, 2020).
- Clinton, Robert J. *The Making of a Leader: Recognizing the Lessons and Stages of Leadership Development* (Colorado Springs: NavPress, 2012).
- Cloud, Henry, and John Townsend. *Boundaries: When to Say Yes, How to Say No To Take Control of Your Life*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7).
- Crouch, Andy. *Playing God: Redeeming the Gift of Power* (Downers Grove, IL: IVP Books, 2013).
- Crouch, Andy. *Strong and Weak: Embracing a Life of Love, Risk and True Flourishing* (Downers, Grove, IL: IVP Books, 2016).
- Daniel, Lillian, and Martin B. Copenhaver. *This Odd and Wondrous Calling: The Public and Private Lives of Two Ministers*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2009).
- DeGroot, Chuck. *When Narcissism Comes to Church: Healing Your Community from Emotional and Spiritual Abuse* (Downers Grove, IL: IVP Books, 2020).
- Dixon, Robert. *Together in Ministry: Women and Men in Flourishing Partnerships*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21).
- Friedman, Edwin. *A Failure of Nerve: Leadership in the Age of the Quick Fix*, 10th Anniversary edition (New York: Church Publishing, 2017).
- Hagberg, Janet O. *Real Power: Stages of Personal Power in Organizations* (Salem, WI: Sheffield Publishing, 2003).
- Hamman, Jaco J. *When Steeples Cry: Leading Congregations Through Loss and Change* (Cleveland: Pilgrim Press, 2006).
- Herrington, Jim, R. Robert Creech, and Trisha Taylor. *The Leader's Journey: Accepting the Call to Personal and Congregational Transform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2003).
- Hester, Richard L., and Kelli Walker-Jones. *Know Your Story and Lead with It: The Power of Narrative in Clergy Leadership* (Herndon, VA: The Alban Institute, 2009).

- Lischer, Richard. *Open Secrets: A Spiritual Journey Through a Country Church* (New York: Doubleday, 2001).
- Nouwen, Henri J. M. *In the Name of Jesus: Reflections on Christian Leadership* (Chestnut Ridge, NY: The Crossroad Publishing Co., 1989).
- Peterson, Eugene. *Working the Angles: The Shape of Pastoral Integrity* (Grand Rapids, MI: Eerdmans, 2011).
- Peterson, Eugene. *The Contemplative Pastor: Returning to the Art of Spiritual Direction* (Grand Rapids, MI: Eerdmans, 1989).
- Peterson, Eugene. *The Pastor: A Memoir* (San Francisco: HarperOne, 2011).
- Reese, Randy, and Robert Loane. *Deep Mentoring: Guiding Others on Their Leadership Journey* (Downers Grove, IL: IVP Books, 2012).
- Smith, Gordon T. *Called to be Saints: An Invitation to Christian Maturity*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14).
- Scazzero, Peter. *The Emotionally Healthy Leader: How Transforming Your Inner Life Will Deeply Transform Your Church, Team, and the World*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5).
- Taylor, Barbara Brown. *The Preaching Life* (Lanham, MD: Cowley Publications, 1993).
- Walling, Terry B. *Stuck!: Navigating the Transitions of Life and Leadership* (Bloomington, MN: ChurchSmart Resources, 2008).
- Willard, Dallas. *The Great Omission: Reclaiming Jesus' Essential Teaching on Discipleship* (San Francisco: HarperOne, 2006).
- Willimon, William H. *Pastor: The Theology and Practice of Ordained Ministry* (Nashville: Abingdon Press, 2016).

crcna.org/PCR



Christian Reformed Church
**Pastor Church
Resources**